

平康蔡氏族譜之始祖淵源考

蔡 守 煥*

• 目 次 •

- | | |
|--------------|--------------|
| I. 序 言 | IV. 平康蔡氏始祖淵源 |
| II. 平康蔡氏族譜沿革 | IV. 結 言 |
| III. 平康本貫鄉地 | |

I. 序 言

姓은 血族關係를 나타내기 위하여 制定한 것으로서 韓國의 姓氏는 中國姓氏 制度의 影響을 받아 王族에서부터 使用하여 왔다.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는 高句麗의 始祖 朱蒙을 高氏, 百濟의 始祖 溫祖를 扶餘氏라 하였고, 또 新羅에는 朴, 昔, 金 三姓의 記錄이 나타나는 등 古代部族社會 때부터 姓을 使用한 것처럼 記錄되어 있으나 그것은 모두 中國文化를 輸入한 뒤에 나타난 것들이다.

그러한 것들은 『三國志』이하 『唐書』까지의 中國 正史에 나타나 있는 高句麗, 百濟, 新羅의 임금의 姓名을 보면 姓은 없고 이름만 나오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高句麗 長壽王 때 中國에 보내는 國書에 高氏를 표시하고 있고, 百濟는 近肖古王 이후 餘氏를 사용하다가 武王 때부터 扶餘氏로 표시하였다. 新羅는 『北齊書』에 金眞興, 金眞平의 記錄에서 高句麗는 長壽王 때, 百濟는 近肖古王 때, 新羅는 眞興王 때부터 姓氏를 使用하고 있음이 증명된다. 『三國史記』에 記錄된 人名을 보아도 百濟는 近肖古王, 新羅는 眞興王 以前에 姓을 쓴 사람은 없다.

韓國의 姓 貫制度는 中國의 漢式姓氏制度를 輸入 模倣한 데서 시작되었지만 本格的으로 定着된 時期는 羅末麗初라 생각된다. 後三國時代에는 地方勢力으로 代表되는 이른바 豪族勢力이 登場하는데 이들은 高麗의 開國과 統一에 적극 參與함으로써 각 出身地 또는 居住地별로 郡縣土姓이 되어갔다. 豪族은 高麗의 開國과 後三國統一過程에서 새로운 貴族官僚로 새 王朝를 擔當하는 支配勢力으로 成長하여 갔다. 高麗前期에 進出한 貴族과 高級官人을 姓貫別로 分析해 보면 소수의 中國・渤海系 歸化人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는 모두 郡縣土姓 出身이었다.

이와같이 姓은 王室에 국한되어 使用하다가 羅末麗初에 걸쳐 功이 큰 功臣들이나 歸化人들에게 出身地나 世居地의 地名을 따라 郡縣土姓을 分定하면서 확대되어 가기 시작하였다. 一般的으로 姓을 널리 쓰게 되는 것은 高麗中葉부

* 全北産業大學校 教授

터 이고 그러다가 朝鮮時代に 들어와서 一般人들의 姓氏 使用과 함께 姓氏가 擴大 됨에 따라서 各氏族의 身分의 權威를 象徵하는 族譜를 刊行하게 되었다.

族譜 역시 일찌기 中國에서부터 始作되었다. 소위 帝系라 하여 王室의 系統을 쓰기 始作하였으니 이것이 곧 帝王年表이다. 우리나라의 族譜는 高麗때부터 있어왔다. 역시 王室의 系統을 記錄한 데서부터 始作되었다. 대체로 高麗中葉以後부터 金寬毅의『編年通錄』任景肅의『璿源錄』이 그 효시라고 하겠다. 韓國의 族譜史上 板刻成冊해서 頒布한 것은 『安東權氏成化譜』(成宗七年, 1476)가 最初이다. 하지만 族譜의 完全한 體系를 갖춰 오늘날까지 族譜의 標本이 되어온 族譜는 朝鮮 明宗 十七年(AD. 1562)의 『文化柳氏嘉靖譜』이다. 그 후 壬辰倭亂의 社會的 混亂과 함께 많은 文獻이 燒失되자 兩班으로서의 社會的인 身分을 과시하기 위하여 各門中에서 族譜를 만들기 시작하였으므로 17·18세기以後에 많은 族譜가 쏟아져 나왔다.

平康蔡氏의 族譜도 이러한 狀況下에서 朝鮮 顯宗 二年(AD. 1661)에 刊行되었다. 本稿에서는 族譜에 나타나는 平康蔡氏 始祖의 淵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이다. 먼저 平康蔡氏의 族譜刊行과 平康이라는 貫鄕에 대하여 檢討한 후 始祖의 淵源에 대하여 考察하고자 한다.

II. 平康蔡氏族譜沿革

平康蔡氏의 族譜는 現在까지 여덟번 發刊하였다. 初刊의 族譜는 朝鮮 顯宗 二年 辛丑(AD. 1661)에 그 당시 慶州府尹 이었던 蔡忠元이 慶州府內에서 처음으로 一卷짜리 族譜를 創刊하였다. 이 族譜는 加平郡守 蔡增光으로부터 얻은 草譜, 京畿道 廣州에 사는 李儀와 慶尙道에 사는 卞懷瑛의 집에 所藏되어 있던 草譜와 全羅道에 사는 崔徽之가 보내온 草譜를 토대로 하여 平康蔡氏의 根源과 史蹟을 최초로 밝혔다.

第二刊은 辛丑譜가 創刊된지 八八年이 지난 朝鮮 英祖 二四年 戊辰(AD. 1748)에 蔡時文이 辛丑譜를 參考하여 全北 高敞郡 興德面 烟起寺에서 四卷의 族譜를 發刊하였다.

第三刊은 朝鮮 正祖 十四年 庚戌(AD. 1790)에 蔡濟恭이 左議政에 있을 때 漢陽에서 八卷짜리로 크게 重修하여 編刊 해냄으로써 다시 蔡氏家門의 根源과 系譜를 確實하게 하였다.

朝鮮時代に 들어서 平康蔡氏 家門을 名門家門으로서의 地位로 굳힐수 있었던 人物이 바로 中宗代의 蔡世英과 英祖代의 蔡濟恭이다. 특히 이 族譜를 刊行한 蔡濟恭은 朝鮮 英祖 十九年(AD. 1743) 庭試文科에 丙科로 及第, 承文院權知副正字를 비롯하여 여러要職을 거쳐 暗行御史로 湖南을 다녀와 都承旨에 이르러

서는 「列聖誌狀」과 「御製補篇」의 編纂에 참여하였다. 吏曹參判을 거쳐 戶曹參判이 되어 英祖 四七年(AD. 1771)에 冬至正使로 淸나라에 다녀왔다. 正祖初에 刑曹判書가 되어 金尚魯의 殘黨들의 罪를 밝혀내 處罰했으며, 兵曹判書가 되었다가 당시 勢道家인 洪國榮과 뜻이 맞지않아 그만 두었다. 이 때 僻派인 洪相範등이 正祖를 弑害하려 하자 昌慶宮의 守宮大將으로 僻派의 陰謀를 剔抉하였다.

正祖四年(AD. 1780) 奎章閣提學이 되어 徐明膺과 「國朝寶鑑」을 編纂하였다. 右議政 左議政을 거쳐 領議政에 이르렀으며 모든 政令의 得失, 軍民의 苦樂, 財賦의 狀況, 國家의 大計 등에 대하여 研究하여 是正하였다. 判中樞附事가 되어 죽으니 王이 친히 誄文을¹⁾ 지어 祭祀하게 한 蔡氏家門의 唯一한 人物이다.

第四刊은 朝鮮高宗 十二年 乙亥(AD. 1875)에 吏曹參議였던 蔡東述이 庚戌譜가 發行된지 八六年이 지난 뒤에 漢陽에서 什四卷짜리 族譜를 重修하여 刊行하였다.

第五刊은 乙亥譜가 나온지 二四年후인 光武 二年(AD. 1898)에 黃石公 蔡石永이 全北 沃溝郡 聖山面 大明里 香林에서 重修譜 十卷짜리로 發刊하였다.

第六刊은 1921년에 다시 黃石公 蔡石永이 全北 沃溝郡 聖山面 山谷里 少監公의 七代孫인 蔡謙益의 祭閣 遠慕薺에서 十四卷짜리 再修譜를 發刊하였다.

第七刊은 蔡奎象이 諸宗의 뜻을 모아 1965년에 全北 扶安郡 扶安邑 奉德里에 있는 判書公 祭閣인 恭修薺에서 四卷짜리 大同譜를 重修編刊하여 그 結果로 三相祠를 建立하고 始祖인 蔡松年과 그의 아들인 楨과 華를 祭祀하고 있다.

第八刊은 1991년에 完成한 現代版 大同譜로서 全北 群山市 米原洞 平康蔡氏 大宗會 併設 大同譜所에서 八卷짜리로 發刊되었다.

III. 平康本貫鄉地

時代의 흐름에 따라 姓氏가 점차적으로 擴大되면서 같은 姓氏라 하더라도 系統이 달라, 그 根本을 明確하게 區分하기가 어려웠으므로 同族여부를 가리기 위해 屢연적으로 登場하게 된 것이 本貫이다. 本貫이란 本, 貫鄉, 또는 貫이라고도 한다. 이는 始祖나 中始祖의 出身地 혹은 定着世居地를 근거로 呼稱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같은 本을 中心으로 이루어진 同族部落을 形成하였다.

平康은 오늘날 民族悲劇의 產物인 休戰線 以北에 位置하고 있어서 狹아볼 수 없는 땅이다.

本來 平康은 高句麗의 一百六十四의 州郡縣 가운데 하나인 漢山州에 속해있던 斧壤縣이다. 일명 於斯內縣이라고도 하였다. 新羅時代에는 景德王 때에 廣平縣

1) 京畿道 龍仁郡 龍仁邑 驛北里에 正祖親製인 蔡濟恭 文牌가 現存하고 있다.

으로 고쳐 富平郡의 領縣으로 삼았다. 平康이라는 地名은 高麗 顯宗 九年(AD. 1018)에 이르러서이다.²⁾ 高麗가 後三國을 統一하고 廣大한 領土를 차지하였지만 太祖 二三年(AD. 940)에 이르러서 비로소 諸州·府·郡·縣의 名號를 고치고 成宗代에 또 州·府·郡·縣 및 關·驛·江浦의 名號를 고쳐서 드디어 境內을 나누어 十道로 하고 十二州에다가 節度使를 두었다. 十道가 管轄하는 州·郡은 모두 五八十餘가 되었다. 高麗 顯宗初에 節度使를 廢止하고 五道護 七五道 安撫使를 두었다가 이어 安撫使를 罷하고 四道護 八牧을 두었다. 이로부터 以後로는 五道兩界로 定하니 楊廣道, 慶尚道, 全羅道, 交州道, 西海道와 東界 北界로 總括하면 四京 八牧 十五府 一佰二十九郡 三佰三十五縣 二十九鎭이 된다. 이 때 平康은 交州道 東州 金化郡 平康縣으로 所屬하였다.³⁾ 그러다가 高麗 明宗 二年(AD. 1172)에 監務를 두었으며, 뒤에 金化監務로서 兼務하게 되었다. 恭讓王 元年(AD. 1389)에는 道로 分割되었다. 朝鮮 太宗 十三年(AD. 1413)에 通例에 따라 縣監이라 일컬었다.

平康縣에서 東쪽은 金化縣계까지 二四里, 淮陽府界까지 二七里, 南쪽은 鐵原府界까지 一五里, 西쪽은 伊川縣界까지 六十里, 安峽縣界까지 六三里, 北쪽은 咸鏡道 安邊府界까지 八一里, 漢陽과의 거리는 二六八里이다. 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戶는 一百六三, 人口는 二百十二, 侍衛軍의 수가 六十七이다. 土姓으로는 蔡, 全, 朴의 三姓이 있다.

IV. 平康蔡氏始祖淵源

平康蔡氏의 최초의 族譜인 朝鮮 顯宗 二年 辛丑(AD. 1661)에 刊行된 序文에 平康蔡氏始祖의 淵源을 新羅의 第一七代 奈勿王의 駙馬라고 하였다.⁴⁾ 그리고 거기에 考證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기사는 族譜를 刊行할 때 蔡氏의 淵源을 新羅王室에 두어 美化하려는 의도에서 이다. 특히 辛丑譜를 그 당시 慶州府尹이었던 蔡忠元이 慶州府內에서 刊行함에 따라 新羅의 王室과 連繫시켰을 蓋然性은 더욱 커진다. 韓國의 姓氏 대부분이 그 始祖의 淵源을 보면 王室에 많이 두고 있음에 蔡氏 역시 新羅王室과 聯關 두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아진다.

新羅에 있어서 王室의 婚姻關係를 보면 철저한 王族間의 近親婚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나오는 王位繼承 史料에서 奈勿王系時代의 王室勢力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

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四七, 平康縣條.

3) 『高麗史』 志, 卷十, 地理.

4) 平康蔡氏大同譜.

5) 위 表는 李鍾旭, 「新羅王實勢力의 變遷과 王位王權의 成長」 嶺南大學校 『民族文化叢書』 七輯에서 引用하였다.

〈奈勿王系家系の 王母・王妃族〉

王代	王 族		王 母 族		王 妃 族	
	王 名	王 父 名	王 母 名	王母父名	王 妃 名	王妃父名
17	奈勿麻立干	未仇角干	休體夫人		保反夫人	味鄒王系
18	實聖麻立干	大西知伊飡	伊利夫人	昔登保阿干	味鄒王系女	味鄒王系
19	訥 麻立干	奈勿王	保反夫人	味鄒王系	阿老夫人	實聖王
20	慈悲麻立干	訥 王	阿老夫人	實聖王	巴胡葛文王女	巴胡葛文
21	炤知麻立干	慈悲王	巴胡葛文王女	巴胡葛文王	善兮夫人	期寶葛文王

〈奈勿王系家系の 王室勢力〉

王代	王 族		王室勢力的 地位			王室勢力的 姓		
	王 名	王 父 名	王 父	王母父	王妃父	王族	王母	王妃
17	奈勿麻立干	未仇角干	角干		王系	金	金	金
18	實聖麻立干	大西知伊飡	伊飡	阿干	王系	金	昔	金
19	訥 麻立干	奈勿王	王	王系	王	金	金	金
20	慈悲麻立干	訥 王	王	王	葛文王	金	金	金
21	炤知麻立干	慈悲王	王	葛文王	葛文王	金	金	金

奈勿王은 前王인 訖解王이 無子이기 때문에 味鄒王의 婿의 身分으로 王位를 繼承하게 된다. 이 以後로는 表에서 보는 바와같이 奈勿王系의 王妃들의 姓은 모두 金氏로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味鄒王系의 女를 王妃로 맞이하였다. 奈勿王系는 味鄒王의 血族後孫集團에 속한 女를 婦人으로 삼아 金氏族中 味鄒王系의 勢力과 婚姻을 통한 聯盟을 맺었고, 또 그러한 힘으로 前代의 昔氏王勢力을 制壓하고 金氏王時代를 열었던 것이다.

慈悲王은 末斯欣 巴胡葛文王의 女를 妃로 맞이하였다.⁶⁾ 그리고 炤知王은 乃宿伊伐飡 또는 期寶葛文王의 女를 王妃로 삼았다.⁷⁾ 末斯欣은 奈勿王의 王子이며 訥祗王의 동생으로 되어있다.⁸⁾ 炤知王의 妃의 父는 乃宿이란 人物이 葛文王에 策封되면서 期寶葛文王으로 이름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⁹⁾ 期寶葛文王은 奈勿王의 子이며 訥知王의 동생이고 習寶葛文王의 아버지이며 智證王의 할아

6) 『三國史記』三, 新羅本紀 三, 慈悲麻立干 四年 王納舒弗邯末斯欣女爲妃.

『三國遺事』一, 王曆 一, 第二四慈悲麻立干條에는 妃巴胡葛文王女라 나온다.

7) 『三國史記』三, 炤知麻立干 卽位年 母金氏 舒弗邯末斯欣之女 妃善兮夫人 奈宿伊伐飡女也. 『三國遺事』一, 王曆 四, 第二一毗處麻立干. 妃期寶葛文王之女也

8) 『三國史記』三, 新羅本紀 三, 實聖尼師今年 與倭國通好 以奈勿王子末斯欣爲質. 同書, 奈勿麻立干 二年條 王弟末斯欣自倭國逃還.

9) 註六 參照.

버지가 된다.¹⁰⁾ 즉 慈悲王과 炤知王은 모두 奈勿王系에 속한 女를 妃로 맞이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族內婚을 意味하는 것이다. 그것도 父方平行四寸婚의 범주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訥祗王의 母는 奈勿王의 妃로 味鄒王系家系의 女이다. 慈悲王의 母는 訥祗王의 妃인 實聖王의 女로 阿老夫人이라 불리었다. 炤知王의 母는 末斯欣巴胡葛文王의 女로 되어있다. 즉 奈勿王系家系에 속한 王들은 모두 金氏族에 속한 王母를 가졌으며 특히 炤知王의 경우 王母・王妃族이 모두 奈勿王系家系所屬의 여자들이었다. 이와같이 奈勿王系家系에 族內婚으로 좁아지는 것은 王位자체가 超越的인 存在로 되어지는 것을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奈勿王系의 家系王室은 철저한 王室內의 族內婚으로 점철되었다. 平康蔡氏族譜에 나타나는대로 蔡補漢이 奈勿王의 駙馬였다면 平康蔡氏의 淵源은 바로 奈勿王家系에 나타나는 한명의 王이되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族譜를 刊行하는 過程中 蔡氏姓을 新羅王室과 연계시켜 美化하고자 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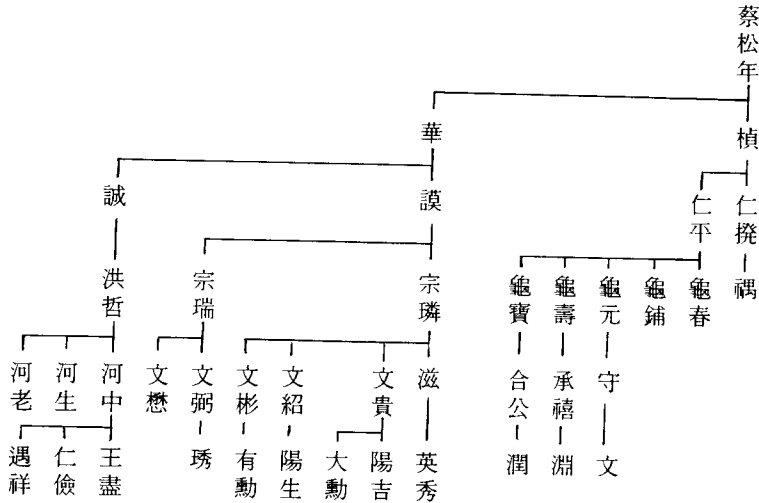
朝鮮 顯宗 二年 蔡忠元이 族譜를 刊行할 때 引用한 草譜에 의하면 平康蔡氏의 始祖淵源을 新羅奈勿王의 駙馬인 蔡補漢 이라는 說 以外에 文林郎司宰同正 蔡仲淹이 始祖라는 說이 있다. 또한 平康縣 初西面 甲棄川 곁에 翁主의 집터가 있어 사람들이 손으로 가리켰다는 傳說이 있고, 고을 典農마을 곁에 翁主의 田地가 있었다는 것과 고을 鄉校 곁에 塔이 있는데 蔡元光이란 이름 글자와 政丞의 官職이 쓰여져 있는지라 蔡元光이 始祖라는 說도 있지만 考證할 수 없을 따름이다. 그리고 駙馬의 後代에 百年 千年 萬年 三世와 監察糾正 敬延과 神虎衛大將軍 邦, 文林郎司宰同正 壽甲, 文林郎太廟署令 永의 四代가 있다고 記錄하고 있다.¹¹⁾

하지만 위와같은 사항들은 명확히 알수가 없었기 때문에 平康蔡氏의 族譜를 처음 刊行하였던 蔡忠元이 始祖를 高麗高宗때 門下侍郎平章事를 지낸 蔡松年으로 함에 따라 以後 平康蔡氏의 始祖는 蔡松年으로 現在까지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平康蔡氏의 族譜上에 나타나는 上代의 家系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 『三國遺事』一, 王曆 一, 第二二智訂麻立干 夫訥祗王弟期寶葛文王.
『三國史記』三, 新羅本紀 三, 智證王即位年 奈勿王之曾孫 習保葛文王之子.
11) 平康蔡氏 先世系派傳疑.

〈平康蔡氏大同譜〉



平康蔡氏大同譜에 始祖로 되어 있는 蔡松年은 高麗 高宗一五年(AD. 1228)에 兵馬使로서 清寒鎮의 戶長이 謀叛하자 이를 平定하였던 記事가 『高麗史』世家에 나오는 最初の 記錄이다.¹²⁾ 앞서 蔡松年에 대한 記事가 高麗 毅宗二年에(AD. 1148) 나오고 있는데 이는 中國 金國에서 그 당시 使臣으로 高麗에 왔던 同名異人의 人物이다.¹³⁾ 松年은 武人政權下에서 특히 崔忠獻의 휘하에서 出世하였던 人物로 보인다. 御殿行首로 郎將을 除拜하였는데 오래 職銜을 고치지 않거늘 崔忠獻이 그 緣故를 물으니 答하지 않는지라 곁에 사람이 있어 말하기를 그 父가 지금 아직 參職에 除拜되지 못하였는데 만약 職銜을 고쳐 朝路에 나가게 되면 혹시 그 父가 바라보고 그 아들인줄 알지 못하여 馬에서 내려 避해 달아날가 두려워 함이다. 라고 하니 忠獻이 그 父를 參職에 除拜하였다. 松年은 이로말미암아 崔忠獻이 중히 여기는 바가 되어서 樞密承宣 御史大夫 參知政事에 오르고 있다는 『高麗史』列傳의 內容을 통해서 알 수 있다.¹⁴⁾ 松年은 高宗 三八年(AD. 1251)에 中書侍郎平章事로서 卒하였다.

『高麗史』의 記錄을 살펴보면 松年以前의 人物로 蔡忠順·蔡溫謙·蔡宏·蔡忠顯·蔡克誠·蔡碩·蔡世章·蔡祥正·蔡元·蔡順禧·蔡元富·蔡仁 등 11名이나

12) 『高麗史』卷二三, 世家二三, 高宗二五年.

13) 『高麗史』卷一八, 世家一八, 毅宗二年. 宴金使於大觀殿 大里卿完顏宗安 禮部侍郎蔡松年 來册王 爲開府儀 同三司上柱國高麗國王.

『金史』蔡松年傳, 字伯堅 號肅閑老人 諡文簡 金朝右丞相 封衛國公 原籍新蔡 金太宗天會中期 松年爲太子中允 第眞定府判官 自此爲眞定人 父蔡靖 松朝進士出身 曾在蘇州 河間等任地方官.

14) 『高麗史』卷一百二, 列傳 卷一五, 蔡松年傳.

나오고 있다. 이 中 蔡世章은 宋나라 綱首로서 仁宗元년에 高宗即位의 紹를 가지고 高麗에 온 人物이다.¹⁵⁾

『高麗史』의 記錄에 蔡氏姓을 使用한 人物으로 最初로 登場하는 人物이 蔡忠順이다. 忠順은 이미 高麗 穆宗十一年(AD. 1008) 中樞院 直學士로서 知貢擧가 되어 進士를 取하고 甲科 孫元仙 等 四人과 乙科 五人과 明經 二人에게 及第를 賜하였다.¹⁶⁾ 忠順은 高麗初期에 中央에서 相當한 勢力을 維持하고 있었던 人物로 생각된다. 穆宗은 여러날 病患으로 恒상 內殿에 있어 群臣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여 宰臣들이 問病을 청하여도 許諾하지 않았다. 하지만 王이 崔沆과 蔡忠順만을 불러 立嗣할것을 密議하였을 정도로 信任받았던 人物이다.¹⁷⁾ 顯宗即位年에 中臺省의 直中臺에 오르고 이어서 吏部侍郎 左諫議大夫에 오른다. 顯宗二年(AD. 1011)에 契丹이 侵入하여 大廟와 宮闕과 民屋이 불타서 폐허가 되자 王은 廣州로 避身하였다. 王을 扈從하던 諸臣들이 河瑋辰 等이 契丹軍에게 붙잡혔음을 듣고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여 흩어져 달아났을 때 忠順만이 王의 轍을 떠나지 않았으므로¹⁸⁾ 顯宗은 忠順을 더욱 信任하여 中樞使에 오른다. 이어 醴部侍郎을 거쳐 吏部尚書 參知正使가 되고, 同王十年에는 濟陽縣 開國男에 封해졌다. 內史侍郎 平章使兼 西京留守를 거쳐 太子少師判尚書 禮部事, 內下侍郎, 判西京留守事에 임명되었다가 靖宗二年(AD. 1036)에 門下侍郎 平章事로서 致任하다 卒하였다.

蔡溫謙은 顯宗二年에 契丹族이 侵入하였을 때 通州城의 大將軍으로 싸우다 戰死한 人物이다.¹⁹⁾ 蔡宏도 契丹族이 侵入하였을 때 中郎將으로 戰功을 세워 爵1一及을 받은 人物이다.²⁰⁾ 蔡忠顯은 靖宗 元年(AD. 1035)에 閣門使로 王命을 받들어 終命을 고하였고, 文宗 三年(AD. 1049)에 醴部尚書에 오른다.²¹⁾ 蔡克誠은 全羅道按察使 高進明이 南原府使 池俊, 判官 文安慶 等과 함께 他人의 財物을 侵奪한 罪를 彈劾함에 따라 判官에서 罷免 당하였다.²²⁾ 蔡碩은 刑部侍郎으로 李資謙과 連繫되어 있던 인물로 妙淸의 亂이 平定된 뒤에 珍島縣에 流配되었다.²³⁾ 蔡仁은 毅宗 十九年(AD. 1165) 鷹揚軍上將軍 攝兵部尚書로 東宮을 侍衛하는 任務를 修行하였다.²⁴⁾

蔡元은 毅宗 二四年(AD. 1170)에 發生한 武臣亂과 關係가 깊은 人物이다. 普賢院에서 李高·李義方·鄭仲夫 等이 임금을 扈從한 文官과 大小臣僚를 殺害

15) 『高麗史』 卷一五, 世家 卷一五, 仁宗六年.

16) 『高麗史』 卷七三, 志二七, 選舉一.

17) 『高麗史』 卷三, 世家三, 穆宗一二年.

18) 『高麗史』 卷四, 世家四, 顯宗二年.

19) 『高麗史』 卷四, 世家四, 顯宗二年.

20) 『高麗史』 卷四, 世家四, 顯宗七年.

21) 『高麗史』 卷六, 世家六, 靖宗元年, 文宗三年.

22) 『高麗史』 卷一四, 世家一四, 睿宗一三年.

23) 『高麗史』 卷一五, 世家一五, 仁宗五年.

24) 『高麗史』 卷一八, 世家一八, 毅宗一九仇.

하고 서울에 있는 文臣 五十餘人을 죽이었다. 임금이 還宮하여 就寢하고 있을 때 李高·蔡元이 王을 弑害하고자 하였으나 梁淑이 말렸다. 결국 李義旼이 王을 坤元寺 北淵上에서 弑害하였다. 여기에서 蔡元이 武臣叛亂의 主動人物 中の 하나임을 알 수 있다. 亂을 成功하여 明宗을 擁立한 이들은 鄭仲夫·李義方·李高를 壁上功臣을 삼아 閣上에 圖形하고 梁淑과 蔡元을 그 다음에 두었다는 데서도 證明이 된다.²⁵⁾ 하지만 蔡元은 李義方에 의하여 李高와 함께 죽임을 당한다.

蔡祥正은 明宗 二年(AD. 1172) 衛謝卿으로 金에 方物을 貢物하기 위하여 다녀왔고, 同王 六年 趙位寵의 亂 때 兵馬副使로서 맹활약을 하였다.²⁶⁾ 蔡元富는 明宗 六年(AD. 1176) 鳴鶴所의 亡伊·亡所伊가 亂을 일으켜 山行兵馬使라 自稱하고 公州를 攻略하였을 때 郎將 朴剛壽 등과 함께 祗俟로서 賊을 宣諭하였다.²⁷⁾ 蔡順禧는 神宗 即位年(AD. 1197)에 樞密院副使에 발탁되었던 人物이다.²⁸⁾

以上の 人物이 蔡松年以前の 人物들로서 『高麗史』에는 나오지만 平康蔡氏大同譜에 나타나 있지 않은 人物들이다. 蔡松年 以後 大同譜에 나오는 人物 中 蔡華만 除外하고는 蔡禎·蔡仁揆·蔡仁平·蔡謨·蔡禍·蔡宗璘·蔡洪哲·蔡河中 등은 모두 『高麗史』世家에 記錄되어 있는 人物들이다. 이와같이 蔡松年 훨씬 以前에 맹활약하였던 蔡氏姓의 人物들이 『高麗史』에 登場하고 있었음에도 이들을 始祖로 하지 않고 蔡松年을 始祖로 삼았던 理由에 대하여 批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高麗史』記錄에 最初로 登場하는 蔡忠順은 蔡松年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高麗初期에 中央에서 활약하였던 人物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V. 結 言

韓國에 있어서 姓氏는 王室에서 使用하다가 羅末麗初 各地方에서 活躍하던 豪族勢力이 高麗의 建國과 後三國統一에 積極 參與한 結果 中央貴族으로 登場하게 됨에 따라 郡縣土姓이 分定되면서 定着되기 始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王室系 譜를 제외한 私家の 譜牒은 郡縣土姓이 分定되기 始作한 高麗 太祖二三年(AD. 940) 以後에 나오기 始作했다. 高麗時代 墓誌銘의 記錄에 家譜·譜牒·家牒 등의 용어가 보이지만, 이들은 모두 15세기부터 나오는 朝鮮時代의 族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25) 『高麗史』 卷一九, 毅宗二四年.

『高麗史』 卷一二八, 列傳四一, 李義方傳.

26) 『高麗史』 卷一九, 世家一九, 明宗二年.

27) 『高麗史』 卷一九, 世家一九, 明宗六年.

28) 『高麗史』 卷二一, 世家二一, 神宗即位年.

高麗時代에서도 新進士大夫의 成長에 따라 14세기부터 그들 나름대로 자기 先祖의 由來와 得姓사실을 修飾했던 것이다. 즉 文化柳氏 安東權氏 全義李氏 善山金氏 등의 始祖名이 柳車達·權幸·李倬·金宣弓이라는 데서 각기 그럴듯한 해석을 가하여 改姓·改名·事實을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敍述은 實際 事實과는 거리가 먼것이라 하겠다. 한편 高麗前期에 家勢를 자랑하던 門閥貴族들 가운데 水原 崔士威·慶州 崔彦僞·承老系를 비롯하여 貞州柳氏·忠州劉氏·黃州皇甫氏·慶州金氏(富軾系) 등은 家譜나 家牒과 같은 中間整理段階를 거치지 못한 채 武臣亂을 계기로 沒落했기 때문에 그들의 家系가 後代의 族譜와 連結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新興勢力들은 本來의 寒微한 家系를 隱蔽하기 위하여 그들의 始祖를 新羅의 宗姓이나 麗初의 三韓功臣에서 由來했다고 模倣하는 예가 많았다.

朝鮮時代 특히 17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族譜編纂이 流行하게 되었는데 族譜를 編纂하려고 했던 家門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그들의 先代世系를 整理해서 連結할 수 있는 關係資料가 없었다는 것이다. 中間의 整理段階를 거치지 못하면서 또 關係資料까지 이어받지 못한 新興 兩班들에 의해 作成된 家乘이나 族譜는 自意的인 造作과 修飾이 가해질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結果 이렇게 나온 族譜들은 대체로 자기 先祖가 新羅 내지 高麗時代부터 名門出身이었고 또 家門의 由來가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한 데서 世系가 상당히 遡及되었는가 하면 族譜上에 記載된 先祖의 官職도 誇張되어 있다.

朝鮮兩班社會는 先祖의 血統과 家門의 由來를 중시하는 社會였기 때문에 이에 편승한 後世내지 後孫들에 의해서 高麗後期나 朝鮮前期의 中間整理 段階를 거치지 않은, 조잡하고 修飾된 族譜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朝鮮時代의 族譜編纂의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앞에서 살펴본 平康 蔡氏의 族譜上에 나타나는 始祖淵源의 問題와 始祖가 高麗初期에 郡縣土姓의 分定으로 나타났을 蔡氏姓의 最初의 人物인 蔡忠順이 아닌 蔡松年으로 되어 있는 問題를 냉철히 批判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